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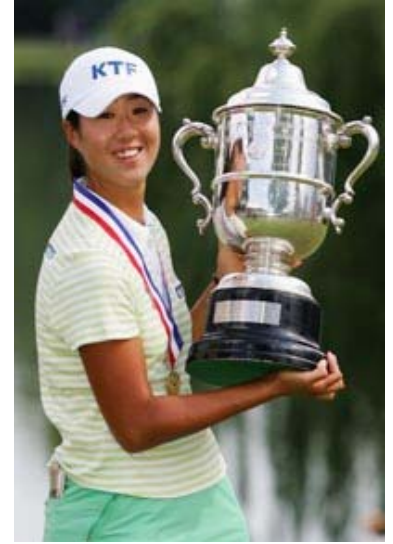
체리 힐스 빌리지, 콜로라도 2005 년 6 월 26 일. - U.S. 여자 오픈 최종라운드 18 번홀에서 나온 이날의 유일한 버디가 토너먼트의 승자를 결정지었다.

LPGA 투어 2 년차인 버디김은 U.S. 여자 오픈 역사상 파 4 홀중 가장 길고 (459 야드, 파 4) 이 대회 의 가장 어려운 홀에서 두 번째샷을 오른쪽 그린 주변의 벙커에 빠뜨린 후 신기에 가까운 버디샷으로 우승을 거머쥐었다.

2004 년 김주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던 버디김은 최종합계 3 오버파 287 타 (74-72-69-72)로 아마추어 브리타니 랭과 모건 프리셀에 두타차로 승리를 거두고 LPGA 투어 볼렉스 퍼스트타임 승자가 되었다.

버디김은 2004 년 20 번의 대회에서 오직 3 번의 컷을 통과했으며 올해 칩필에이 챔피언쉽에서 공동 7 위를 한 것이 최고의 성적이었다. 그녀는 이번대회전 오직 한번의 20 위내입상을 거두었고 올해에는 14 번중에서 7 번의 컷을 통과했다.

하지만 이런 기록들은 더이상 중요한것이 아니었으며 버디김은 10 번째의 U.S.여자 오픈의 승자가 되었고 여자 골프역사상 가장 많은 상금인 56 만불을 거머쥐게 되었다.



U.S. 여자오픈 출전을 위해 예선을 거친 버디김은 올해 141 위의 샌드세이브율을 기록하고 있었으며 이번 토너먼트전까지 27 번의 기회중 단지 6 번의 샌드세이브를 기록했다. 그녀는 이와 같은 상황을 잘 극복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18 번홀의 벙커샷으로 그녀는 자신의 커리어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사실 저는 벙커샷을 잘하는 선수가 아니예요.” 라고 말하면서 버디김은 그와 같은 샷을 다시 하려면 최소한 50 번이상 시도해야 할거라고 예상했다. “그리고 2 주전에 샌드웨지를 교체했는데 아직 저에게 익숙하지 않아서 이번 대회에서 많은 실수를 했거든요. 결국 하나를 성공했죠.”

버디김은 ADT 상금랭킹 66 위에서 단숨에 6 위로 뛰어올랐으며 이번주 HSBC 세계여자 매치플레이 챔피언쉽에 출전하는 기회도 잡았다. 그녀는 또한 2003 년 힐러리 룬키가 U.S. 여자오픈에서 커리어 첫승을 거둔이래 14 번째로 U.S 오픈에서 커리어 첫승을 거둔 선수가 되었다.



U.S.여자오픈에 3 번째로 출전한 17 세의 프리셀은 위타빅스 여자 영국오픈 우승자 카렌 스티플스와 15 세의 미셸위와 공동선두로 최종라운드를 시작했다. 그녀는 시종일관 자신감 넘치고 나이에 걸맞지 않은 침착함과 액션들을 동시에 보여주었다. 그녀는 5 오버파 289 타를 기록했으며 버디김의 샷을 페어웨이에서 보기도 했다.

“그녀가 그샷을 성공시키다니 정말 믿을수 없었죠.” 김의 샷이 훌겁으로 빨려들어갈때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그녀의 머리위로 손을 얹었던 프리셀은 말했다.

프리셀은 버디김과 타이틀 이루고 18 홀 연장을 갈 수 있는기회를 가졌지만 그녀의 두 번째샷이 약간 짧게 그린 주변 오른쪽에 떨어졌다.그녀의 칩샷은 훌겁을 지나가면서 보기로 경기를 마무리하며 19 세의 랭과 공동 2 위를 기록했다.

듀크대학 2 학년을 갓 마친 랭은 마지막조보다 한시간 일찍 경기를 시작하며 첫 6 홀에서 3 오버파를 치며 함께 8 오버파로 경기를 치렀으나 이후 4 타를 줄여 4 오버파로 18 홀을 시작했다. 마지막 홀에서 그녀의 파퍼팅이 홀컵 가장자리에 멈추며 그녀는 5 오버파로 경기를 마무리했다.

“저는 이번주 매우 즐거웠고 버디킴이 벙커샷을 버디로 성공시킨 것에 실망하지 않았어요.” U.S. 여자 오픈에 처음 출전한 랭은 말했다.

랭은 실망하지 않았다고 말했으나 버디킴이 어떻게 우승했는지에 대해서는 매우 놀라워했다.

“그 홀은 매우 어려운 홀이거든요. 저도 매우 놀랐지만 그렇게 골프죠.” 라고 말했다.

최종라운드에서 유일하게 언더파를 친 로리캐인은 나탈리 걸비스와 공동 4 위를 기록했다.

최초의 한시즌 4 개 메이저대회 우승을 노렸던 애니카 소렌스탐은 2002 년 위트빅스 여자 영국 오픈에서 컷오프 탈락한 이후 최저의 성적인 공동 23 위로 경기를 마쳤다.

**U.S. 여자오픈 우승으로 버디킴은 다음의 상금과 혜택을 받게 된다.**

상금 56 만불

5 년동안의 LPGA 투어 출전권

10 년동안의 U.S.여자오픈 출전권

5 년동안의 크래프트 나비스코 챔피언십 출전권

5 년동안의 맥도널드 챔피언십 출전권

5 년동안의 위트빅스 여자 영국오픈 출전권

미첼챔피언스 토너먼트 출전권

2005 년 삼성월드 챔피언십 출전권

2005 년 에비앙 매스터스 출전권

롤렉스 퍼스트타임 우승자로서 롤렉스손목시계

롤렉스 올해의 선수 60 포인트

